

지역 9월 수출 29.4% 증가… 무역흑자 18억8000만달러

광주본부세관, 9월 수출입 현황

석유제품 수출 100.9% 급증… 항공유 175% 늘어
수출 65억9000만달러·수입 47억2000만달러 기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9월 수출이 석유제품과 수송장비 등의 호조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출액이 전년 동월보다 29.4% 늘어난 가운데 무역수지는 18억 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5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26년 9월 전남광주 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광주의 수출액은 65억92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4% 증가했

다. 전월인 8월과 비교해도 20.8% 늘었다. 수입액은 47억15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4.1% 증가했지만, 전월보다는 5.3%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8억77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12억9500만달러, 올해 8월 4억8000만달러와 비교해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수출 증가세는 석유제품이 주도했다. 9월 석유제품 수출액은 22억9500만달러

구 분	2025년		2026년	
	9월	1~9월	9월	1~9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5.093 (7.5)	44.008 (△7.0)	5.457 (7.5)	6.592 (29.4)
수 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798 (1.9)	33.474 (△7.8)	4.977 (31.3)	40.464 (20.9)
무역수지	1.295	10.534	480	11.863

자료제공 : 광주본부세관

로 전체 수출의 34.8%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월보다 100.9% 증가했다. 특히 석유제품 가운데 항공유 수출액은 175.0% 늘었다.

수송장비 수출도 14억3900만달러로 33.4% 증가했다. 화공품은 10억5000만달러로 11.9%, 고무타이어 및 튜브는 5500

만달러로 36.5% 각각 늘었다. 반면 철강제품은 6억7300만달러로 11.0% 감소했고, 반도체 수출도 4억8100만달러에 그쳐 12.5% 줄었다.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증가세와 감소세가 엇갈린 셈이다.

국가별로는 동남아 수출이 16억7300만달러로 28.9% 증가해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했다. 유럽연합(EU)은 10억5700만달러로 56.3% 늘어 주요 수출 대상국 가운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중국은 6억7100만달러로 3.8%, 미국은 6억2200만달러로 0.5%, 일본은 3억4900만달러로 22.9% 각각 증가했다. 중남미 수출은 2억8200만달러로 14.1% 감소했다.

수입은 원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원유 수입액은 20억500만달러로 전체 수입의 42.5%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월보다 23.1% 증가했다. 원유 수입 가운데 중동산 비중은 80.6%였고, 미국산은 14.0%, 기타 지역은 5.4%였다.

반도체 수입은 6억9700만달러로 20.4% 늘었으며, 석유제품은 3억5600만달러로

239.6% 급증했다. 철광은 15.8%, 석탄은 43.5%, 화공품은 61.9% 각각 증가했다. 반면 기타 품목 수입은 8.0% 감소했다.

수입 대상국별로는 중동이 18억6800만달러로 51.1% 증가했고, 동남아는 7억8000만달러로 14.4%, 호주는 4억7500만달러로 13.3% 늘었다. 중국과 일본 수입도 각각 3.5%, 30.1% 증가했다. 미국 수입은 3억8300만달러로 31.8% 감소했다.

올해 1~9월 누적 수출은 523억27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8.9% 증가했고, 수입은 404억6400만달러로 20.9% 늘었다. 누적 무역수지는 118억6300만달러 흑자다. 9월 수출 증가와 함께 연간 누적 실적도 전년보다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전남TP, 전남광주 통합 채용박람회 ‘성황’

지역기업 39개사 참여 532명 면접… 현장서 15명 채용

전남테크노파크는 최근 광양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6 전남광주 통합 채용박람회’에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 1500여명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기업에는 인재를,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현장채용관에는 철강·금속·소재, 항만·물류, 기계·설비, 스마트제조, 서비스·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39개사가 참여해 142명을 모집했다. 현장면접에는 532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15명이 당일 채용됐다.

현장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구직자 가운데 기업과 연결된 인원은 행사 이후 참여기업별 추가 면접과 자체 채용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박람회는 채용 지원과 함께 지역주력산업과 미래산업을 소개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전남광주 미래산업관’에서는 전남 동부권에 집적된 철강·이차전지·방산·우주항공·화학 산업과 반도체 첨단산업을 소개했다.

광양국가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그린산업 조성 사업도 선보였다.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과 통합관계센터 구축사업, 스마트물류·스마트에너지 플랫폼사업 등을 통해 제조공정 지능화와 산업안전 강화,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산업현장의 변화와 새로운 인력 수요를 알렸다.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아르고마린도탈은 AICCTV를 활용한 위험상황 감지와 안전관리 기술을 선보였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광양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2026 전남광주 통합 채용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역 생산·수출·건설 회복세… 소비·투자는 둔화

제조업 생산 0.7%·수출 5.0% 증가…수입 31.1% 급증
건축착공면적 159.7% 늘었지만 소매판매 4.4% 감소

전남광주지역의 제조업 생산과 수출, 건설투자가 증가세를 보였지만 소비 부진과 설비투자 위축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착공면적이 큰 폭으로 늘고 수출도 증가했으나, 제조업 출하가 감소하고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등 실물경제 전반의 회복세는 엇갈렸다.

1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최근 전남광주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전남광주지역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했다. 광주 제조업 생산이 8.5% 늘어난 반면 전남은 3.0%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장비 생산이 30.1% 증가하며 제조업 생산을 뒷받침했다. 제1차 금속도 8.0%, 식료품은 4.3% 늘었다. 반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은 7.8%, 전자부품은 7.6%, 코크스·석유정제는 2.0% 감소했다. 자동차·트레일러 생산도 1.9% 줄었다.

다만 생산 증가에도 제조업 출하는 1.9% 감소했고 재고는 6.6% 늘었다. 생산과 달리 출하가 줄고 재고가 쌓이면서

제조업의 회복 흐름이 업종 전반으로 확산하지는 못한 모습이다.

소비도 부진했다. 8월 전남광주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9.1로 전년 동월 대비 4.4% 하락했다. 광주는 2.2%, 전남은 9.2% 감소해 전남의 소비 위축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도 8581대로 9.5% 줄었다.

소비심리 역시 소폭 후퇴했다. 9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6.5로 전월보다 0.5p 하락했다. 지수가 기준치 100을 웃돌아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인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소비심리가 다소 약해졌다.

반면 건설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8월 건축착공면적은 88만7000㎡로 전년 동월 대비 159.7% 늘었다. 주거용 착공면적이 42만8000㎡로 203.9% 증가했고, 공업용도 6만2000㎡로 211.4% 확대됐다. 건축허가면적도 27만5000㎡로 85.7% 증가했다.

다만 건설경기 회복을 낙관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8월 말 기준 미분양아파트

는 3642호로 전월보다 74호 감소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이 2381호에 달했다. 레미콘 출하량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8.0% 줄어 건설 현장의 자재 수요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거래에서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했지만 수입 증가 폭이 더 컸다. 8월 수출액은 53억33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0% 늘었다. 석유제품 수출이 19억 800만달러로 62.8% 증가한 영향이 컸다. 화학공업제품과 플라스틱·고무 수출도 각각 15.5%, 31.3% 늘었다.

반면 기계류 수출은 41.5% 감소했고 전자전기와 반도체 수출도 각각 15.0%, 21.4% 줄었다. 수입액은 49억7100만달러로 31.1% 증가했다. 원유 수입이 23.4%, 전자전기 수입이 48.2% 늘면서 수출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는 3억6200만달러로 전월 9억2100만달러보다 축소됐다.

설비투자도 약세를 보였다. 8월 기계류 수입액은 631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4% 감소했다. 다만 9월 제조업 설비투자 경기실사지수(BSI)는 87로 전월보다 8p 상승해 기업들의 투자 관련 체감 심리는 일부 개선됐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전남광주 아파트값 한달 만에 상승 전환

매매가격 지난주 보합서 0.03% 올라…순천·무안 견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 보합에서 상승으로 돌아섰다. 무안군과 순천시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통합 지역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 전세가격도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2일 기준) 전남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0.00%)보다 0.03%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무안군의 매매가격이 0.18%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무안읍과 일로읍 일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순천시도 해동면과 연항동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0.16%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상승했

다. 수도권은 0.20%, 서울은 0.16% 올랐으며 지방은 0.01% 상승했다. 지방 가운데 전남광주의 상승률은 세종(0.02%)보다 높았다. 전남광주를 제외한 4대 광역시는 보합을 기록했고, 7개 도는 0.01% 상승했다.

전세가격도 오름세를 유지했다. 같은 기간 전남광주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01% 상승률을 나타냈다. 순천시가 조례동과 해동면을 중심으로 0.10% 올랐고, 무안군은 일로읍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0.08% 상승했다.

전국 전세가격은 0.11% 올랐다. 수도권과 서울이 각각 0.18% 상승했고 지방은 0.04% 올랐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전남광주, 외형 성장 넘어 시민 삶 바꾸는 전략 짜야”

광주연구원, 출범 100일 맞아 ‘광주 Think Net’ 제10호 발간
산업·교통·농생명·기초사회·문화관광 등 6개 분야 과제 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통합에 따른 규모 확대를 넘어 시민의 삶과 지역 역량을 함께 높이는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과 교통, 농림축수산, 문화관광 등 분야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통합의 성과가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

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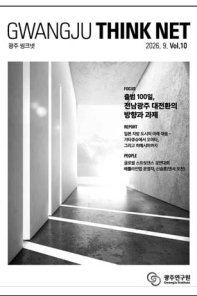
광주연구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100일을 맞아 ‘전남광주 대전환의 방향과 과제’를 기획 주제로 한 제10호 ‘광주 Think Net’ 제10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는 시정 6개 분야의 정책 전환 방향을 짚고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발

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총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정책의 ‘전환’에서 김기근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문연희 책임연구원은 통합이 기존 정책과 사업을 단순히 합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두 지역에 분산된 자원과 기능을 함께 연결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범 100일을 성취를 판정하기보다 향후 정책의 방향과 실행 과제를 구체화할 시점이라고 진

단했다.

연구진은 발전의 개념도 경제성장 중심에서 시민의 삶의 기회 확대와 지역 간 격차 완화, 공동체와 생태의 지속가능성까지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정책 원칙으로 기업과 시민의 수요를 연결하는 ‘연결’,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관계적 정책공간’, 성과와 부담을 함께 나누는 ‘질적 공유’, 성장의 성과가 지역 역량으로 축적되는 ‘축적형 순환 성장’을 제시했다.



통합의 성과를 시민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시민도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함께 결정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야별 논단에서는 6개 분야의 정책 전환 방향을 구체화했다. 경제·산업 분야는 개별 지역 단위의 산업 육성에서 권역 간 기능 연계로의 전환을, 공간·교통 분야는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정책 틀을 다뤘다. 농림축수산 분야는 ‘농생명산업특별시’를 통한 도농 균형발전 방

안을 제시했다.

기초사회 분야에서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적 삶과 관광 매력을 높이기 위한 자원 연계 방안을 다뤘다. 생태·안전 분야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회복력 중심의 정책 체계를 제안했다.

이 밖에도 전남광주 지역의 잠재성, 물과 청년층 첫 일자리, 생애주기서비스를 분석한 일반논단 3편을 수록했다. 통합의 기회를 짚은 시민칼럼과 서창동 마을탐방, 글로벌 스트리트댄스 공연대회 ‘배틀라인업’ 운영자인 댄서 오연재(신승훈) 인터뷰도 담았다. 이송홍 기자 photo25@